

무안 ‘연꽃축제’새 이름 찾아요

6월 개최 앞두고 전 국민대상 명칭 공모

무안군은 오는 6월 26~29일 4일간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28회 무안연꽃축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 명칭을 공모한다.

그동안 연꽃축제는 백련 개화 시기인 7~8월 중 개최됐으나,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6월 말에 열린다.

이에 따라, 군은 연꽃 개화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축제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축제 명칭 공모에 나서게 됐다.

축제 명칭은 기존 연꽃축제의 상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회산백련지의 자연과 야간 경관이 어우러지는 축제 콘셉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모는 오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www.muam.go.kr)를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hjung11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1명) 20만원, 장려상(1명) 1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지급되며, 선정작은 5월 중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박문재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연꽃이 피기 전 축제가 열린다 보니 관광객들의 기대와 현장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축제 명칭을 새롭게 만드려고 한다”며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매력적인 이름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성문 기자

‘신안정원김밥 콘테스트’ 접수 시작

선착순 20팀 접수...신안세계김밥페스타서 26일 본선

신안군은 제3회 신안세계김밥페스타 축제 첫째 날인 오는 26일 ‘신안정원김밥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신안정원김밥은 사계절 꽃피는 신안의 정원을 표현한 김밥으로 작년에 개발되어 상표권 출원을 마친 신안세계김밥페스타 대표 김밥이다.

본 경연은 신안정원김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20팀 접수를 받는다. 대회는 현장에서 진행되며 신청이 미답되면 현장에서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다.

경연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신안정원김밥 키트로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드는지 대결하고 우승팀을 선정하

여 신안 특산물들을 증정한다.

참가 접수는 신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jares.shinan.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jy7677@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최초 김밥축제인 신안세계김밥페스타가 벌써 3회째 개최를 앞두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회 신안세계김밥페스타는 오는 26일 부터 27일까지 2일간 자은도 해변 뮤지엄파크에서 개최된다.

/신안=정경욱 기자

해남 물김 위판액 2년 연속 1000억 돌파

무더기 폐기 위기 극복 하고 최대 매출 달성

초기 채묘 시기 갯병 없고 수출국 확대 등 효과

해남의 물김 위판액이 홍수출하에 따른 단가 하락과 무더기 폐기 등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10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은 2025년산 물김이 위판액이 지난 9월 기준 115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체 위판고인 1138억원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년 연속 위판고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위판고 증가는 물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2025년 해남산 물김 생산량은 현재까지 총 7만8159kg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과 초기 채묘 시기에 갯병 발생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이 고품질 김 생산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고 수출국 또한 2010년 66개국에서 2023년 122개로 확대되는 등 해외의 한국 김(K-Gim)의 큰 인기가 바탕이 되어 물김 수요가 증가한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

올해 물김 위판은 오는 23일 전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량과 위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물김 생산은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채묘 시기가 늦어진 데 이어 1월 들어 홍수 출하에 따른 물김 위판가의 하락과 폐기 등 위기를 극복하고 최대 위판고를 달성하면서 더욱 의미를 크게 하고 있다.

군은 당시 물김 가격 하락에 해남



군의회, 해남군수협 및 김생산어민연합회와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한 결과 출하조절 사업 예산을 증액해 2억4000만원을 투입, 물김 가격 하락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또 수급 조절을 위한 어업인들의 김 시설량 감축 등 자정 활동이 이어지면서 물김 가격 안정화에 민관이

적극 협력해 위판고 증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 양식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김 양식 생산을 지원하겠다”면서 “2025년산 생산이 종료된 어장 내 김 양식시설물이 조기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스마트 복지 · 안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선정

AI돌봄부터 마을안전까지 취약계층 · 1인가구 지원 본격화

한 총 4,000만 원(지방비 50% 매칭)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군동면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 내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지 · 안전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AI 스코퍼와 AI인부전화를 활용한 1인 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에게 돌봄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돌봄 관제센터 운영 분야, 마을안전지도자 양성 및 찾아가는 마을 안전교육인 등 경로당 안전 인종 평가 분야, 복지 · 안

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분야 등이 포함된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전국 66개 시군구에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이러한 국가 시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과 안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진군은 복지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 안전 공동체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 계획이다.

더불어 강진군은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읍면동 스마트 복지 · 안전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강진=김경선 기자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2025년 4월 5일(토) ~ 5월 4일(일)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영암, 지역문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청년 모여라

‘청년정책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 5개 분야 총 50명, 활동비 등 지원

영암군이 16일부터 ‘2025년 청년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이 네트워크에는 지역 정책 개발에 관심 있는 19~49세 영암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 문화, 참여 · 권리 5개 분야에 각각 10명씩 총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네트워크에 선발된 청년들은 지역

문제와 해결에 대한 기본개념을 학습하고, 5개 분야로 나뉘어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간다.

영암군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김이의 원칙’에 입각해 네트워크 지원에 나선다.

특히, 각 분야에 최대 75만원의 활동비, 모범 지자체 배움 여행비 등을 지원한다.

각 분야에 속한 청년들은 지역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도출, 분야 활동 계획, 회의방식, 자료조사 방법까지 스

스로 찾아 실행한다.

영암군은 전문가 컨설팅,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보장해 분야 별 활동 결과가 정책으로 완성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오는 9월20일 ‘청년의 날’에는 이렇게 마련된 정책의 제안대회를 개최해, 청년들에게 발표 기회도 제공한다. 여기서 채택된 우수 제안은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2026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 전국체육대추전 대비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실시

목포시는 지난 14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목포종합경기장 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목포를 중심으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추전을 앞두고, 관람객과 참가자 모두가 안심하고 대회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경기장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1명을 비롯한 총 15명이 참여했으며, 경기장 내 화장실 · 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시설 운영 상태 전반을 점검했다.

아울러, 경기장 내 안전 사각지대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해 이용자 관점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다.

시는 그동안 주요 행사 전 정기적으로 시민참여단과 함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목포=김근호 기자

진도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



진도군은 최근,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 ·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도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제1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개모집과 학교 추천 모집을 통해 총 12명(남학생 3, 여학생 9)으로 구성됐으며, 청소년들이 참여해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수행할 역할과 목표에 대해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문화의집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향후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관련

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도군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경험하고 배우며, 자신감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도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해 10월에 개관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재가계, 공예 체험 등 잠재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도=박재영 기자